

중·고령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권혁창
(국민연금연구원)

신혜리*
(연세대학교)

김진수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입 초기 단계의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투명성 그리고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일반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책대상자인 저학력층, 비경제활동인구, 저소득계층인 취약계층이 오히려 더 인지도가 낮았다. 둘째, 일반 회귀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 간에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노후준비가 절실한 취약계층이 오히려 정책 지식의 부족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신체적 노후준비, 정책지식

본 연구는 분석보고서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저자의 소속기관과는 무관함.

* 교신저자: 신혜리, 연세대학교(zisoa@nps.or.kr)

■ 투고일: 2012.4.30 ■ 수정일: 2012.12.4 ■ 게재확정일: 2012.12.24

I. 서론

제도의 발전을 위한 분석에서 중요한 과정은 평가이다. 평가의 의미는 발전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선적 기준은 수급자에게 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정책목표수행에 대한 평가는 사회보장 특히, 사회보험제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보험제도는 제도의 부담과 급여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민감성이 조세체계보다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의 경우와는 제도 도입 시기에 있어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야 했다. 즉, 제도가 성숙된 경우에는 제도에 참여한 모든 계층이 제도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영향이 일관성 있고 상호간의 관계가 명확하지만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단계에는 이러한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변화를 가리고 전체 체제에 대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발전정책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보험 제도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며, 이 제도는 제도도입과 동시에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급여의 형태가 현물급여로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스스로 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보험료에 일부 추가하는 형태로 인하여 재정 부담에 대한 영향도 명확치 않아 이에 대한 측정을 위한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 도입 초기 상황의 불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평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성이 인지도에 대한 분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비록 한계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초기 정책과정에서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난이성과 인지도 관계는 이러한 점에서 초기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정책대상자가 알고 있는지 혹은 정책의 내용을 정책대상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등 정책지식에 대한 연

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제도(혹은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 혹은 정책에 대한 지식(policy knowledge)은 정책대상자 혹은 미래 정책대상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정책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e.g., Meyer et al., 2007; Anderson, 2002).

미국의 경우 1996년 복지개혁 이후 복지개혁의 효과성과 수급자들의 복지개혁 내용에 대한 지식 정도의 상관관계가 논의되었으며(e.g., Meyer et al., 2007), 한국에서는 사회보험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백화중·강성호, 2008; 백화중·우해봉, 2009)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한국에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¹⁾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예를 들어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 여부가 정책대상자 혹은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의 행동, 예를 들면 노후준비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수급가능연령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잠재적 이용가능자인 65세 미만의 중·고령자의 신체적 노후준비정도와의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사람들이 미래의 예상 가능한 위험을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사항들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들의 잠재적 미래 위험에 대한 대비수단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그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대효용이론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로 인해 합리적 개인은 미래의 잠재적 장기요양비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인센티브(예를 들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크게 국제적 비교연구(예를 들면,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에 대한 연구들)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 중심의 미시적 주제를 다룬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시적 주제를 다룬 연구들로는 첫째,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연구들(홍석자·서상범, 2011; 이주재, 2011a; 이주재, 2011b; 김혜영, 2011; 신정옥·백주희, 2011), 둘째, 전달체계(입정기 외, 2011; 유재남, 2011; 강욱모, 2010)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들(변영우, 2010; 진영란 외, 2011; 임성욱, 2010), 셋째, 서비스 영향 및 결정요인(한은정, 2011; 이윤경, 2009; 선우덕, 2011) 혹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지영·이미진, 2011; 이미진, 2011; 엄기욱, 2008)이 존재한다.

신체적 노후준비)가 약화될 수도 있다. 한편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보통 사람들은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위험을 평소에 인지하지 못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로 인해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어서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²⁾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예측을 실증적 검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는 잠재적 정책대상층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실증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65세 미만의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고 정책지식과 노후준비가 연관되어 있다는 이론적 논의를 요약한다. 그리고 III장과 IV장에서는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우리는 사회보험에서 정책지식의 역할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들을 요약하고 정책지식과 관련된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정책과 정책지식

정책지식이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사람들의 인지정도가 그

2) 물론 인지에 의한 결과에서 항상 공식적인 효과만을 한정할 수는 없다. 실제 노인장기요양수급자가 재가급여에 있어서 공급자 과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본인부담을 제거서비스 공급자에게 전가하는 불법적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인지심리학의 기본적 전제라 할 수 있다. 즉 인지이론은 인간의 사고가 정서와 행동의 결정인자라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양원경 외, 2010).³⁾ 선행연구 중 인지모델을 정책의 효과와 연결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인지모델을 바탕으로 정책지식과 정책효과의 관계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전의 경험에 의하여 정책을 인지한다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는 개인의 적응적 기능 또는 부적응적 기능을 초래하여 정책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정책지식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영역에서 소수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도 존재하지만 주로 공공부조의 개혁과 관련하여 정책효과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과연 수급자들이 정책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⁴⁾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정책 인지 혹은 정책 지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수준에 초점을 두어 왔다(백화중·강성호, 2008; 백화중·우해봉, 2009; 김진수 외, 2008). 백화중과 강성호(2008)는 국민연금 지위상태(가입자,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종별(사업장, 지역)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수준에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해서 실증분석하고, 국민연금 신뢰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해 로짓 분석을 통해 시행하였다. 국민연금제도 대한 이해수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성, 소득계층별, 재분배, 세대별 재분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성 비교, 국민연금 급여의 물가

3) 인지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앨버트 엘리스(Albert Alice)와 아론 벡(Aron Beck)을 들 수 있는데, Beck은 한 개인이 자신과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각은 다른 심리적·사회적 문제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고, 심리적·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Beck의 이론 중 대표적인 개념인 ‘스키마(schema)’는 기본적 신념과 가정을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한 개인의 지각과 반응을 형성하는 인지구조로 대개 이전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스키마는 한 개인에게 적응적 기능과 부적응적 기능을 할 수 있다(양원경 외, 2010).

4) 물론 정책지식에 대한 수급자의 행위로 국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정적이다. 정책지식에 따라 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주체는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 변화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는 반응체계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책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 역시 광의의 정책지식에 대한 관련 집단의 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연동. 로짓 분석 결과,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해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민연금 신뢰수준이 증가하였으며 수급자의 경우에는 이해수준만이 유일한 신뢰도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화종과 우해봉(2009)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경로분석을 시행하고 기본모형에 추가하여 별도로 연금지위를 준거로 한 다중집단 경로분석(multiple group path analysis)⁵⁾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적절성과 이해수준이 국민연금 신뢰수준과 유의미한 연관관계를 보여준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이 국민연금의 신뢰도와 중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지식수준이 정책대상자의 정책수용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는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2006; 2007; 박윤영 외, 2004),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박종연 외, 2007; 이훈희 외, 2011),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King & Mossialos, 2005)가 있다.⁶⁾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정책지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연구로는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부, 2010)가 있으나,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추출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기 힘들다. 미국에서도

5) 다중집단 경로분석은 기본적으로 모형에서 명시화된 모수의 추정치들이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중집단 경로모형을 통해 백화종과 우해봉(2009)의 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예측변수들이 연금지위별로, 다시 말하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수급자 집단별로 상이한 효과를 갖는가를 검토하였다.

6) King & Mossialos(2005)는 1997년에서 2000년 기간 동안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민간 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지식을 고찰한 연구가 희박하다. 예외적으로, Yuan (2006)은 미국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인식여부, 비용,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와 민간장기요양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조달이 노후준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Yuan(2006)은 첫째,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식의 정도와 구매자의 경제적 상황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적용범위에 대한 지식이해수준과 민간장기요양 구매 간에는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 공공부조제도 및 아동부양제도

미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 EITC제도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을 고찰한 연구 중 Anderson(2002)의 연구는 공공부조수급자들의 정책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다는 것을 6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소득이전제도인 EITC제도에 대해서 피면접자들의 약 67% 정도가 들어보았다고 대답했으며, 단지 30%만이 수급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Anderson(2002)의 연구는 미국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경우, 그들이 수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급여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 공공부조제도인 TANF에 대해 수급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e.g., Coley et al., 2000). 공공부조제도의 개혁이 과연 수급자들의 행동변화를(예를 들면, 근로의욕 고취, 결혼 등) 초래했는가, 즉 공공부조개혁의 정책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수급자들의 정책지식의 정도에 대한 연구를 촉발했다고 보인다. TANF 변화에 대한 수급자들의 인식정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대체적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TANF 제도로의 정책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복지개혁의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동부양제도(child support policy)를 대상으로 한 Meyer 외(2007)의 연구는 정책지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추출하고, 정책지식의 정도와 정책의 효과성을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는 첫째, 아동부양제도에 대해서 수급대상인 공공부조수급자들의 반 정도만이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둘째, 이동부양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책지식의 정도가 아동부양비용에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그들의 연구는 수급자 혹은 잠재적 수급자의 정책지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책의 효과성이 높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

2. 정책지식과 연관된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

정광호(2008)는 개인의 ‘정책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한 정책 지식보다 확장된 개념에의 정책리터러시(policy literacy)⁷⁾를 연구하였다. 정광호(2008)에 따르면,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지식 시민활동 변인과 인구학적 변수(성별, 나이,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변수(교육, 소득, 직업) 및 도구변인(인간관계 신뢰도, 기부의사, 행정 서류신청경험)등의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연구 분석 결과, 정책 리터러시 수준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사무직업을 가진 경우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광호(2008)의 결론은 소득수준 및 성별 등의 인구학적 변인이 정책 지식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논문과도 일치한다 (Alan & Alan, 200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속성들(성, 연령 등)과 사회경제적 변수(학력, 취업여부, 소득 등), 그리고 건강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를 고찰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

7) 정광호(2008)는 정책리터러시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전통적 의미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정책 지식(policy knowledge)수준으로 측정된다. 둘째, 기능적 의미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실생활에서 정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이다. 즉, 일상 삶과 관련해서 정책에 적응하는 능력(policy adaptation capacity)으로 정의된다. 셋째, 비판적 측면에서의 정책 리터러시는 어떤 정책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한다.

가. 노후준비

Rosow(1974)는 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노년기로 접어들거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를 잃게 되거나 또는 노년기로 접어들며 역할이 단절되는 현상들이 노년기 사회화 특히 노령기로의 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라고 지적하였다. Gross 외(1973)는 건강, 수입, 고독 등 은퇴 후 문제들과 함께 나이에 따라 직면하는 노후 생활준비, 시간사용, 재정적 문제, 결혼한 자녀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노인들의 노후준비는 노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노후준비는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창제, 2008: 279).

이러한 성공적 노후준비를 위한 요소 중 건강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Edward, 1973; Knapp, 1976; McClland, 1982; 박은숙 외, 1997; 김미혜 외, 2005). Peterson(1983)에 의하면 신체적 의미에서의 노인기란 “신체적 변화가 개인으로 하여금 활동을 제한하고 운동과 참여를 감소시키도록 하는 시기”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노인들은 고령이 될수록 신체기능들이 저하되어 질병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와 함께 일상생활 동작능력도 약화되어 타인들의 원조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 또한 함께 증가한다. 노화가 찾아오는 동시에 함께 수반되는 신체건강상의 장애는 노인 자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인들의 신체적 건강문제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좌우할 정도로 노인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최혜경, 2000). 그러나 신체적 노화란 연령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개인의 유전적 요소와 운동량, 식사, 흡연과 음주 등의 생활습관, 그리고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개인들 간에도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신체적 노화 자체를 피할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나 신체적 쇠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홍석태, 2007),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신체적 노화, 또는 노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즉, 질병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예방대책을 위한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 조절,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김양이·이채우,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측면에서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노인들의 삶의 질에서 중요한 측면이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신체적 노후준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신체적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간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한국에서의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 연구

한국에서 노후준비 실태와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 노후에 대한 준비의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희 외(2005)의 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결과,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한 노인의 비율은 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소정(2009)이 전국 45~64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2.4%가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2011)에서도 65세 이상 인구 중 61%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준비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최성재, 2009), 노후준비는 대부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후준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신영(2009)은 2004년 대구광역시 노인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이용하여 도시거주노인들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정도를 알아 보고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후준비를 하였다는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53.6%이며, 성별, 학력, 자녀유무, 월 소득, 주관적 생활수준, 만성질환유무 등이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다. 2007년 통계청의 사회통계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유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박창제(2008)에 따르면, 경제적 노후준비가 전혀 안된 중·고령자의 비율은 25.6%이며, 남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 현재소득인식, 주택소유, 거주 지역, 전반적 생활여건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그렇다면 과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65세 미만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 의하면 개인은 현재와 미래, 건강할 때와 이플 때의 서로 다른 기대효용들의 가중된 합을 경제적 자원, 보험료, 장기요양비용이 제약 하에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요양비용에 대비하여 현재의 소득을 보험이나 저축을 통해 미래로 이전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강효진, 2006). 즉, 기대효용이론은 현재의 행위를 결정하는데 미래의 잠재적 위험까지 모두 고려하는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고 있다. 기대효용이론을 전제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각 개인이 추가로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기요양비용에 대비한 민영보험이나 저축을 하려는 동기는 약화될 수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존재로 인해 개인적 차원에서 미래의 잠재적 장기요양비용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려는 인센티브(예를 들어, 신체적 노후준비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

만약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 즉 현재의 행위결정함수에 미래의 잠재적 위험이 고려된다는 전제가 비현실적이면,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65세 미만 중·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른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경제학(Kahneman & Tversky, 1979; Kahneman, 2011; 강은숙·김종석, 2011; 김진영·신용덕, 2011)은 기대효용이론과는 달리 인간이 항상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행동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경제학에 접목하여 효율적 시장가설(가격이 최상의 정보)을 흔들어 놓았다. 기대효용가설이 전제하는 확률적 기댓값보다 각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이고, 각 개인은 미래보다 현재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선택한다는 것을 전망이론은 보여 준다(확실성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기댓값이 더 작아도 만족한다. 또한 전망이론에 따르면, 각 개인은 손실과 이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이익보다는 손실에 보다 큰 가중치를 둔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시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노후준비와의 관계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보통 근시안적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만(즉 노후준비를 하지 않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존재

덕분에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서 노후준비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⁸⁾

이러한 상반된 가설들을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 즉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 지식이 행위자의 행동(예를 들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노후준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관성에 대해서 주목한 연구는 Yuan(2006)의 연구가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간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⁹⁾자료이고, 연구대상은 3차 부가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의 자격요건인 65세 미만인 자들로 총 2,895명이다.

8) 이러한 가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경험적 경향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도입이후 관련된 민영보험의 매출은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대효용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즉,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시장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질병과 노후보장에 대한 상당한 영역을 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시장 규모가 잠식되는 것과는 달리 총 시장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두 영역이 모두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선진국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규모가 경기변동에 따라 동일하게 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상호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진수, 2001).

9)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부가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는 본 조사 사이 기간에 본 조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는 중·고령자의 경제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노후준비와 함께 노인일자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인식과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국민연금연구원 내부자료).

2. 변수의 정의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발 서비스 및 현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본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제도 설명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 신체적 노후준비

신체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10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자세한 문항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체적 노후준비에 대한 설문문항들

신체적 노후준비
① 체질과 건강을 고려하여 식생활을 하는 편이다
②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유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③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편이다
④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흡연은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⑤ 노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는 편이다
⑥ 충분한 수면시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⑦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필요시마다) 건강진단을 받는 편이다
⑧ 만성질환을 조절하거나 예방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⑨ 규칙적인 생활로 무리하지 않는 편이다
⑩ 평상시 나 스스로 나의 건강상태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대표 변수들은 3차 부가조사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자료의 일부 변수도 활용하였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2>에서 기술하였다.

표 2. 변수의 측정

변수의 종류	변수 측정방법	분석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인지 1, 비인지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신체적 노후준비	연속변수(1~10문항의 총합)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연령	연속변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성별	남성 1, 여성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학력	대졸 이상 1, 고졸 이하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경제활동상태	취업 1, 비취업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
소득	연속변수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부동산	부동산 자산 소유 1, 비소유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부채	부채 잔액 있음 1, 없음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상속	상속/증여 경험 있음 1, 없음 0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건강	연속변수(ADL 및 IADL ¹⁰⁾ 의 총합)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본조사(2009)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첫째,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둘째,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우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기 전에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주요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에 수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0.8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장상희·이상문(역), 2007), 분석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0.55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회귀

10) 일상생활활동,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 일상생활활동 및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은 Katz(1970)이 개발한 지표를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ADL과 Lawton과 Brody가 개발한 I-ADL을 대한노인병학회 노인기능평가연구회에서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정한 K-IADL 척도이다. 각 척도는 옷 입기, 세수하기 등의 7문항으로 구성된 일상생활활동과 목단장하기, 집안일 하기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적 일상생활활동에 대해 ‘혼자서 할 수 있음(1점)’부터 ‘혼자서 전혀 할 수 없음(3점)’으로 응답받고 있다(원장원, 2002).

식에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인 경우에 사용하는 회귀분석의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쓰이는 기본 모델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장상희·이상문(역), 2007). 이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변수를 이용하였다.

$$\text{Logit}(p) = \alpha + \beta_1 \text{Age} + \beta_2 \text{Sex} + \beta_3 \text{Edu} + \beta_5 \text{Work} + \beta_6 \text{Income} + \beta_7 \text{Estate} + \beta_8 \text{debt} + \beta_9 \text{Inherit} + \beta_{10} \text{Health}$$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신체적 노후준비를, 독립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를 이용하였으며, 통제변수는 선행연구들에게서 언급되었던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여부,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변수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Y_{(i)} = \alpha + \beta_1 LTC + \beta_2 \text{Age} + \beta_3 \text{Sex} + \beta_4 \text{Edu} + \beta_6 \text{Work} + \beta_7 \text{Income} + \beta_8 \text{Estate} + \beta_9 \text{debt} + \beta_{10} \text{Inherit} + \beta_{11} \text{Health}$$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특징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3차 부가조사 참여자 중 65세 미만인 연구대상은 총 2,895명이며, 이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

한 대상은 1746명(60.33%),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대상은 1148명(39.67%)이다. 대상자의 연령대 중에는 60~64세가 40.52%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1642명(61.92%)로 남성의 1010명(38.08%)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772명(61.21%)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동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대상(57.10%)과 참가하지 않는 대상(42.90%)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평균소득은 약 36,093천원이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고 있는 집단(약 39,399천원)이 비인지한 집단(약 31,066천원)보다 다소 높았다. 건강은 ADL과 IADL의 점수를 총합하여 최소 17점에서 51점으로 점수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17점에 몰려있었고(2512명), 140명이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천원, (%), S.E)

구분		총		인지		비인지	
전체		2,895	(100)	1,746	(100)	1,148	(100)
연령 (Age)	50세 미만*	125	(4.32)	90	(5.15)	35	(3.05)
	50-54세	552	(19.07)	366	(20.96)	186	(16.2)
	55-59세	1,045	(36.1)	637	(36.48)	408	(35.54)
	60-64세	1,173	(40.52)	653	(37.4)	519	(45.21)
성별 (Sex)	남	1,010	(38.08)	611	(38.4)	399	(37.64)
	여	1,642	(61.92)	980	(61.6)	661	(62.36)
학력 (Edu)	중졸 이하	1,772	(61.21)	988	(56.59)	783	(68.21)
	고졸	870	(30.05)	570	(32.65)	300	(26.13)
	대학 이상	253	(8.74)	188	(10.77)	65	(5.66)
경제활동 (Work)	경제활동	1,644	(57.1)	1,035	(59.69)	608	(53.15)
	비 경제활동	1,235	(42.9)	699	(40.31)	536	(46.85)
소득(Income)		36,093.2	(34,652.63)	39,399.68	(39,891.94)	31,066.55	(23,855.11)
부동산 (Estate)	유	1,400	(48.36)	510	(32.06)	308	(29.06)
	무	1,495	(51.64)	1,081	(67.94)	752	(70.94)
부채 (Debt)	유	818	(30.84)	510	(32.06)	308	(29.06)
	무	1,834	(69.16)	1,081	(67.94)	752	(70.94)
상속 (Inherit)	유	24	(0.9)	15	(0.94)	9	(0.85)
	무	2,628	(99.1)	1,576	(99.06)	1,051	(99.15)
건강 (Health)	일상생활가능	2,512	(94.72)	1,518	(95.41)	993	(93.68)
	일상생활불가능	140	(5.28)	73	(4.59)	67	(6.32)

* 50세 미만에는 개인조사대상자의 배우자로서 개인조사대상이 되는 인원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변수는 학력,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 잘 인지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지식수준 변수들이 인구학적 변수 및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요인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정광호, 2008; Alan & Alan, 2004)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비취약계층인 고학력집단, 경제활동 집단, 고소득집단일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정책지식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영향요인

구분	coefficient	S.E.
연령(Age)	-0.02	0.01
성별(Sex)	-0.13	0.11
학력(Edu)	0.73***	0.19
경제활동(Work)	0.28**	0.1
소득(Income)	0.15**	0.05
부동산(Estate)	-0.09	0.11
부채(Debt)	0.10	0.11
상속(Inherit)	-0.03	0.49
건강(Health)	0.02	0.02
상수	-0.67	0.94
Likelihood Ratio	63.68***	
Score	62.23***	
Wald	59.92***	
-2 Log L	2940.59	
N	2895	

* p<.05, ** p<.01, *** p<.001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와의 관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에 따른 각 영역별 노후준비 평균을 살펴보면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인지하는 집단이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에 비해 신체적 노후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여부에 따른 신체적 노후준비 평균 및 표준오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인지		T Value
평균	S.E.	평균	S.E.	
3.32	0.15	3.22	0.19	-4.21***

* p<.05, ** p<.01, *** p<.00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체적 노후준비 영역을 종속변수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제변수들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성별, 학력, 경제활동, 소득, 부동산, 부채, 상속, 건강을 분석에서 고려하였다.

<표 6>에서 보이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지여부와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에서의 합리적 인간들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현재 준비를 하고자 하나, 인간은 사실상 비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생활하여 미래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를 알게 됨으로서 미래의 본인들에게 일어날 잠재적 위협(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게 될 신체적 노후 등과 같은 가능성)에 대해 자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신체적 노후준비를 하고자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에서 통제된 변수들 중에서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신체적 노후준비를 더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졸이하보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학력 정도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셋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분석한 데이터의 특성상 50대가 대부분인데 이들 중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은퇴를 이미 했거나, 은퇴를 잠정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넷째, 소득과 부동산 자산은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신영, 2009; 박창재, 2008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건강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이 어려울수록 신체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인 건강이 안 좋을수록 신체적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6. 신체적 노후준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여부 간의 관계

구분		Model 1		Model 2	
		coefficient	S.E.	coefficient	S.E.
통제변수	연령(Age)	0.04	0.03	0.05	0.03
	성별(Sex)	0.74*	0.33	0.73*	0.32
	학력(Edu)	1.83***	0.49	1.73***	0.48
	경제활동(Work)	-1.29***	0.28	-1.29***	0.28
	소득(Income)	1.00***	0.14	1.00***	0.14
	부동산(Estate)	0.61 [†]	0.32	0.60 [†]	0.31
	부채(Debt)	-0.22	0.31	-0.25	0.31
	상속(Inherit)	0.57	1.42	0.57	1.41
	건강(Health)	-0.17*	0.05	-0.17**	0.05
독립변수	노인장기요양(LTC)			0.68**	0.26
상수		23.16***	2.68	22.54***	2.66
F Value		14.12***		13.5***	
R-Square		0.0541		0.0573	
Adj R-Sq		0.0503		0.0531	
N		2895		2895	

[†]<.10, * p<.05, ** p<.01, *** p<.001

추가로 우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변수를 포함한 본 회귀분석의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변수를 제거한 모델과의 설명력 차이에 대해서 F 검증을 시행하였다(testing exclusion restrictions). 통계적 검증 결과, 두 모형의 설명력 차이에 대한 F값(35.2)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인지에 대한 변수를 투입한 모형이 이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 변화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적응대상이 미치는 영향의 복잡성에서 적어도 정책적 공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접근하였다. 사회·경제 변화는 사회구성원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변화에 대한 반응을 다양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반응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이를 예측한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정책 결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을 사회보험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인지와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상정했다. 첫째,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여부와 연관되어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65세 미만의 중·고령자들의 신체적 노후준비와는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국민노후보장패널 3차 부가조사(2010)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미만의 중·고령자의 경우 전체 2,895명 중 약 60퍼센트(1,746명)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여부와 연관된 요인들로는 학력, 경제활동, 그리고 소득을 들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이하보다는 대학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신체적 노후준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노후준비가 절실한 저학력층, 비경제활동계층,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이다. 이 분석결과는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보의 불평등(information equality)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 따라서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오히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책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지식의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주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교육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겠다(김대환, 2008).

둘째, 중·고령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지식으로서 인지여부가 신체적 노후준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고령자의 노후준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활용성과 정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보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약계층과 일반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책 홍보를 통해 정보 활용성과 수용성을 높여야만 한다.¹¹⁾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전부터 TV, 라디오,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대적인 광고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 인지도 형성에 많은 노력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메디컬투데이, 2008).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홍보가 그렇듯,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홍보들도 대부분 단순히 제도를 소개하거나 선심성 보장으로만 채워져 있어 비용을 들인 것에 비교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성 상, 노인을 대상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당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며,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수급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해서도 기초노령연금이나 공적연금과 같이 전 국민을 모두 수급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제도의 특성상 젊은 층과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제도의 수급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책 홍보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 경험을 통한 효과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

11) 일반적으로 홍보(PR: Public Relation)란, “특정 조직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민, 공공기관, 언론, 기업 등 관련 공중이나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알리며 그들의 의견을 듣는 모든 과정과 전략을 말한다(김찬동·김정옥, 2011). 이 중에서도 정부에 의한 정책홍보(Public Relations in Government)란 정부의 정책과 그 의도하는 바를 알림으로 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활동이다(박주연 외, 2005).

협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적 효과를 통한 정책 홍보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홍보를 시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인 정책홍보 방법으로는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되,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한 제도 소개 홍보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도 존재의 사회적 타당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회보험 제도 성립과 관련된 게임이론(Game Theory; Morgenstern)은 중요한 제도 도입 및 운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무분별한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물량공세보다는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홍보의 임팩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홍보 외에도 타 재가노인서비스를 함께 홍보하는 비교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65세 노인을 위한 재가노인서비스로는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보건소맞춤형방문건강관리, 보건소치매조기검진/예방사업 등(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이 있으나 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고, 서로 유사한 내용이 많으며, 체계적이지 않은 정책홍보로 인해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모르기가 쉽다. 특히 가사간병서비스나 노인돌보미바우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수급자에게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범위의 보편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인식 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국민적 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유사제도의 다양한 소개를 통한 전체체제를 소개하고, 구제도와 신제도의 차이와 각 제도 간 연계 등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인식과 지식의 충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적 홍보를 정부기관 뿐 아니라 실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전달기관을 통한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감독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집행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재가 및 이소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각 주체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보다는 상하관계적 체제가 형성되어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보다는 제도 정착이나 단기 이익 등 각 개별주체의 입장에 따른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공급주체 내에 있어서도 제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고, 이러한 인식 현상은 제도 발전에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주체 간 운영의 공백을 연계하고 전체적으로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Case management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것도 긍정적 인지와 건전한 발

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 및 인식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방안 모색은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 인식을 높여 정책지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를 아직도 수혜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이 만연하고 있고, 사회복지를 정치중속화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단순 홍보적 태도가 오히려 제도에 대한 진실한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고, 상호 이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은 무엇보다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는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도입 초기의 인식은 지속적인 제도에 대한 태도보다는 정확한 이해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올바른 이해는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지식에 관한 항목이 정책에 대한 인지여부만을 묻고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책지식 수준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단순한 정책 인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정책지식의 이해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지정도를 서열적으로 측정하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권혁창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복지개혁 등이며, 현재 국민연금, 근로연계복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khchang3@nps.or.kr)

신혜리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이며, 동 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며, 현재 국민연금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zisoa@hanmail.net)

김진수는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에서 사회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보장, 사회보험 등이며, 현재 다양한 사회보장관련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kimjinsoo@yonsei.ac.kr)

참고문헌

- 강욱모(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간 파트너십체계 구축방안. *사회과학연구*, 26(3), pp.49-74.
- 강은숙, 김종석(2011).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한국행정논집*, 23(3), pp.779-799.
- 강효진(2006). 노인준비행동의 부부간 상호의존성 연구: 미국 민간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7, pp.5-27.
-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200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서울: 건강보험공단.
- _____ (2006). 200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서울: 건강보험공단.
- _____ (2007). 200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서울: 건강보험공단.
- 김대환(2008). 지식기반 경제의 사회적 도전과 정책적 대응: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8(1), pp.1-21.
- 김미혜, 신경림, 최혜경, 강미선(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삶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회*, 26(1), pp.91-105.
- 김양어, 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1), pp.55-82.
- 김진수, 이동영, 안수관(2008).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자 유형별 제도인식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4(1), pp.149-173.
- 김진수(2001). 장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변화와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46, pp.37-59.
- 김진영, 신용덕(2011). 행동경제학 모형과 그 정책적 응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1), pp.1-27.
- 김찬동, 김정욱(2011). 서울시 정책홍보의 효과성 제고방법: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3, pp.1-230.
- 김혜영(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4), pp.35-59.
- 메디컬투데이(2008. 8. 7). 장기요양보험 홍보비만 78억, 노인 8666명 한 달 요양료. <http://www.mdtoday.co.kr/mdtoday/?cate=1&no=61714>에서 2012.4.6 인출.
- 박윤영, 홍태섭, 윤현병(2004). 건강보험제도 국민 만족도 조사. 서울: 의료정책연구소.

- 박은숙, 김순자, 김소인, 전영자, 이평숙, 김행자, 한금선(1997).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질 간의 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6(2), pp.238-261.
- 박종연, 서남규, 이애경(2007). 국민의 건강보험 인식과 만족에 대한 조사방법의 개발. 보건과 사회과학, 22, pp.97-126.
- 박주연, 문철수, 박현순(2005). 정부 부처의 효율적인 정책 홍보 전략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16(4), pp.31-54.
-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pp.275-297.
- 백화중, 강성호(2008). 국민연금 신뢰도 결정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4(4), pp.1-31.
- 백화중, 우혜봉(2009).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의 특성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4), 161-186.
- 변영우(2010). 농촌지역의 재가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26(3), pp.283-308.
- 보건복지가족부(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른 패널관리 및 부가조사(2010년) 결과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선우덕(2011). 베이비 붐 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의식수준. 보건복지포럼, 174, pp.19-27.
- 신정옥, 백주희(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 노인과 3등급 차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노년학, 31(4), pp.1067-1081
- 양원경, 김정진, 서미경, 김미옥, 김소희(2010). 개정 4판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나남출판사.
- 엄기욱(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보건복지포럼, 142, pp.38-46.
- 원장원(2002).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와 한국형 도구적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IADL)의 소개.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노인병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

집, 서울: 대한노인병학회, pp.1-13.

- 유재남(2011). OECD 15개국 노인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평가. 노인복지연구, 53, pp.333-354.
- 이미진(20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측정상의 쟁점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38(1), pp.141-163.
- 이소정(2009).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인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47, pp.72-80.
-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pp.205-224.
- 이윤경(2009).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 29(1), pp.213-235.
- 이주재(2011a). 노인장기요양보호 인력의 소진 예측 요인. 한국노년학, 31(1), pp.97-109.
- _____(2011b). 노인장기요양 인력의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만족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1(2), pp.277-290.
- 이지영, 이미진(2011). 서비스 관리자가 인식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 서비스의 질 개념, 방해요인 및 질 평가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pp.29-57.
- 이훈희, 김윤태, 이원지(2011). 한국의 복지태도와 건강보험 인식의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7(2), pp.1-25.
- 임성욱(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른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 등급판정체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pp.245-266.
- 임정기, 최명민, 김옥(2011).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장기요양관리직원의 인식에 대한 Q방법론 분석. 한국사회정책, 18(3), pp.191-222.
- 정경희, 오영희, 석재은, 도새록, 김찬우, 이윤경, 김희경(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광호(2008).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 함수분석: 시민활동변인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4), pp.73-104.
- 진영란, 전경숙, 이효영(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주야간보호사업소의 운영현황. 한국노년학, 31(4), pp.985-998.

-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pp.329-352.
-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10, pp.141-164.
- 통계청(2011). 2011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한은정, 강임옥, 권진희(201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시설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31(2), pp.259-276.
- 홍석자, 서상범(2011).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개인적 성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2(4), pp.187-216.
- 홍석태, 2007. 한국 중고령자의 노인교육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아산.
- Alan, S. B., Alan B. K.(2004). What Does the Public Know about Economic Policy and How Does It Know It?. *NBER working paper series*, 10787, pp.1-59.
- Anderson, S. G.(2002). Ensuring the Stability of Welfare-to-Work Exits: The Importance of Recipient Knowledge about Work Incentives. *Social Work*, 47(2), pp.162-170.
- Coley, L. R., Kuta, M. A., Chase-Lansday P. L.(2000). An Insider View: Knowledge and Opinions of Welfare From African American Girls in Poverty. *Journal of Social Issues*, 56(4), pp.707-726.
- Edward, J.(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Gross, H. I., Crandall, W. E., Knoll, M. M.(1973).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3rd Edition),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Kahneman, D., Tversky, A.(1979). Prospect Theory :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2(2), 263-291.
- Kahneman, D.(2011).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Katz, S., Downs, D. T., Cash, R. H., Grotz, C. Rovert.(1970). Progress in

- development of the index of ADL. *Gerontologist*, 10(1), pp.20-30.
- King, D., Mossialos, E.(2005). The Determinant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Provalence in England, 1997~2000. *Health Service Research*, 40(1), pp.195-212.
- Knapp, M.(1976). Predicting the dimension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5), pp.595-604.
- Knoke, D., George W.(2007). Statistics for Social Data Analysis. 장상희·이상문 (역), 2007. 사회통계학: 원리와 실제(4판), 서울: 교우사.
- McClland, K. A.(1982). Self-conception and satisfaction: Integrating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6, pp.723-732.
- Meyer, R. D., Cancian, C. M., Nam, K.(2007). Welfare and Child Support Program Knowledge Gaps Reduce Program Effectivenes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6(3), pp.575-597.
- Peterson, D. A.(1983). Facilitating Education for Older Leaders.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 Rosow, I.(1974). *Socialization to Old Age*,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Yuan, S. C.(2006). *Determinants of awareness and knowledge of long-term care services and financial preparation for future care needs among older adult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hilosophy, University of Hawai'i, Manoa, HI.

부표 1. 상관관계분석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장기요양 인지여부	1											
신체적 노후준비	0.07**	1										
연령	-0.11***	0.04	1									
성별	0.01	-0.23***	0.14***	1								
고졸	0.07***	0.05+	-0.16***	0.13***	1							
대학이상	0.09***	0.08	-0.05	0.16***	-0.2***	1						
경제활동	0.06***	-0.15***	-0.14***	0.28***	-0.01	0.03	1					
소득	0.11***	0.15***	-0.18***	0.08***	0.12***	0.23***	0.13***	1				
부동산	-0.01	-0.06*	0.17***	0.46***	0.06**	0.08***	0.22***	0.02	1			
부채	0.03	-0.1***	0.048*	0.35***	0.06**	0.08***	0.21***	0.03	0.39***	1		
상속	0	0.02	-0.05**	0.04*	0.02	0	0.02	0.06**	0.08***	0.01	1	
건강	0	-0.04	0.07***	0.05*	-0.02	-0.02	-0.13***	-0.08***	-0.02	-0.01	0	1

+<.10, * p<.05, ** p<.01, *** p<.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Old Life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Kwon, Hyeok Chang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Shin, Hye ri

(Yonsei University)

Kim, Jin soo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awareness of middle-aged Koreans under 65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ts contribution to charting the direction for developing Long-term Care Insurance.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KReIS), this study utilizes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ducation, economic activity, and income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Second, awareness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ation for people under 65. This study ha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n information equality. Although policy knowledge is associated with physical preparedness for old-age, the primary beneficiaries for social welfare who are economically inactive with a lower education and lower income, are less likely to know the existence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policy knowledge for policy target population.

Keywords: Long Term Care Insuranc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KReIS), Physical Preparation, Policy Knowledge